

삼위일체 대축일

기도서 P 312

제1독서(출애 34, 4-6. 8-9)
제2독서(고린후 13, 11-13)
복음(요한 3, 16-18)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구국
편집사 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③ 5098 ④ 3201

□ 강론



천주 성삼과 우리

권 영 균 신부

< 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만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이다. 성신을 만나이다. >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행하여진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신비가 표현화되어 있고 성삼위에 대한 인간의 전면적 위탁(委託)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현의(玄義)는 현의중에 현의이며 가톨릭 신앙의 기초이며 가톨릭 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 너무 심오하고 우리의 조그만 두뇌로써는 모두 인식하기가 곤란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란 관념을 터득하기가 어렵지만 하느님이 계시(啓示)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오 3:16, 28:19) 하느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은 한분이시지만 위격(位格)으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파견되신 성부의 외아들이시니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發出)되어 교회안에 항상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이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모든 성사를 이 성삼의 이름으로 받고 있으며 특별히 축복과 은총 역시 성삼의 이름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생활은 성삼의 이름으로 즉 인간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라는 성호 경하나도 정성스럽게 고어야 하겠습니까. 「성부와」 할 때에는 성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성자와」 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드리고 「성신의」 이름으로 할 때는 성신께서 항상 우리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께 더욱 깊이 성화시켜 주심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천주 성삼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신적(神的) 내적생활과 신적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겸허한 마음과 굳은 신앙과 열렬한 사랑으로 성삼을 흠송하고 찬미하고 감사함으로써 성삼께서 우리에게 항상 살으시며 우리 모두 당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도록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화산천주교회 주임신부)



당신의 우상(偶像)은?

인도에서는 열차가 강물에 뛰어드는 사고가 있었다. 얼마나 죽고 다쳤는지도 모르는 그 사고는 철길을 건너는 소를 피하려다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렇다고해서 인도인들이 동물 애호가이기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은 아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일이겠지만, 인도인들에게 소는 신성한 성물(聖物)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드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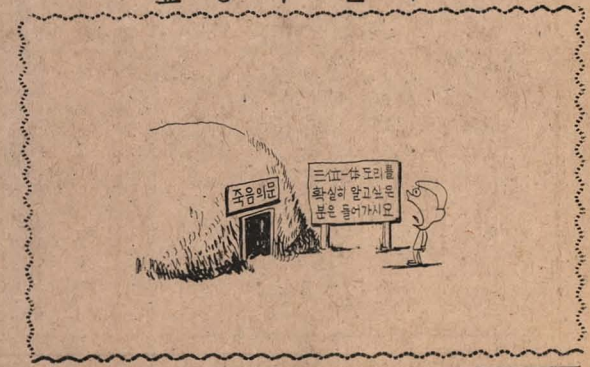
한 나라의 종교적인 관습이라 함부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숭배임에 틀림없다. 결국 인도의 참사는 우상숭배가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일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옛부터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즐겼다. 종교적인 우상에 서부터 시작해서 돈과 권력은 물론 성(性)까지도 우상으로 떠받들어 왔었다. 순수한 의미의 종교적인 우상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권력이나 돈, 그리고 성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도 틀림없다. 문제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고, 그것들은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의 우상은 독재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권력의 우상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저지르는지 우리들은 역사에서 배웠고, 또 경험하기도 했다. 돈을 우상으로 모시는 수전노들의 추한 물골도 보고 있다. 2년전부터 태국산 코브라가 정력제로서 인기가 있다고 한다. 30대의 젊은이부터 여자들까지도 스스로를 이 코브라를 먹겠다고 물린다고 한다. 원가 3천원짜리를 12~3만원에도 좋다고 말이다. 뭔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가끔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않는지...?

숲 정 이 산책



「사제양성(司祭養成) 후원(後援)사업에 적극 참여하자」

성소육성의 의무는 전(全) 그리스찬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실생활로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성소를 육성하려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이같은 활동적 협력은 하느님의 섭리작용과도 일치한다.

(사제양성 교령 2)

본 교구는 오래전부터 사제양성 후원을 구성하여 성소자 증가와 사제양성을 위한 사업을 연구 노력 추진해 왔었다. 이번에 사제양성을 위한 교구적 대책과 후원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키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 모두 성소자 증가와 사제양성을 위한 이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자.

二 사제양성 후원 대책 二

1. 사제 성소를 위한 기도운동

- 가. 첫 철례 5(매월 첫 목요일)를 준수하며 당일 미사를 사제양성 후원미사로 한다.
- 나. 당일(첫 철례 5) 사제양성 후원 미사후 성체강복을 겸한 성시간을 가진다.
- 다. 사제 성소 양성과 영적인 후원을 위해 전교우들이 성당이나 가정에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도록 이끈다.

2. 사제양성 후원기금 조성 운동

- 가. 사제 성소 개발에 특별한 관심과 신심을 고취시키고 특별회원 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 나. 전 교우로 하여금 1년에 한번 성소주일을 기하여 특별헌금을 한다.
- 다. 특별회원은 평균 ① 매월 3만원 이상 ② 1만원 이상 ③ 5천원 이상 ④ 1천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교구적으로 통일된 현금봉투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케 한다.

3. 사제양성 후원회 조직

- 가. 회장 단...부주교(회장), 사목국장(부회장), 관리국장(부회장), 평협회장(부회장)
- 나. 상임위원...① 회장단 4인, ② 사제단대표 5인, ③ 평신도대표 3인, ④ 특별회원대표 3인.
- 다. 총회 구성회원...① 사제단, ② 사도회장단, ③ 특별회원 대표(본당별 1인씩)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운동,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이 마리아

광
고
신
화
요
청
은
③
5
0
9
8
로

교리상식 ⑥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우리에게 내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명하고 있다.

특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도 주께 무한한 사랑으로써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그분이 당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배은망덕. 냉대, 불열심에 의한 고독 뿐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주님께 불경스럽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주께 가해진 모든 모독을 보상하며 그 사랑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성심의 존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성녀 말가리다 알라콕은 주님의 발현을 여러번 뵈옵고 그 신심에 대한 보답의 약속을 들으셨다. 즉 주께서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지만 늘 배은망덕을 당하시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축일을 세울 것과 보속으로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제하며, 목요일 밤에 젓세마니 동산에서의 고통을 묵상할 것을 원하시며 그 신심을 계속하는 이에게는 풍부한 은총을 약속하셨다.

이제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주님께 대한 우리의 보답,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이웃 특히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김기수 신부)

「주여, 자비의 구름을...」

“신이여 메마른 이 가슴속에 비는 그치지 오래입니다. 지평선은 무섭게도 험뻐었습니다. 부드러운 구름의 얇은 얇은 조각마저 흔적을 감추었고, 아득하고 서늘한 소낙비가 내릴듯한 희미한 기색도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죽음으로 덮힌 암흑한, 성년 폭풍우라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번개의 채찍으로 하늘의 끝까지 놀라게 하소서, 그러나 주여, 이 가혹한 말없는 일일랑 불려 들이키소서, 비참한 절망으로 가슴을 배우는 조용하고 날카로운, 그리고 잔인한 일일랑 불려 들이키소서. 위로부터 자비의 구름을 숙으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무척 노하신 날, 눈물어린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사실 과학의 놀라운 발전속에서 우리는 복된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키탄잘리 한 부분이, 정말 가슴속 깊이까지 울먹이게 하는 이유는,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요즘의 우리네 심정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속에서도 결국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뎌야 하는 나약성이 처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비가 오길 바라는 에타는 우리 실정은 그대로 인간을 한 우주 법칙 앞에, 인간이상의 어떤 절대자를 스스로 찾게 합니다.

고도의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전을 선용하므로써 기껏 하늘 아래서, 과학만능의 작은 오만이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손을 모두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이여 메마른 이 대지위에 비는 그치지 오래입니다. 위로부터 자비의 구름을 이 대지위에 수그리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만든 대자연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 교구 신학생 시종·독서직 수여

지난 6월 7일 광주 대진 신학대학교에서 본 교구 소속 5명의 학사님이 시종·독서직을 수여받았다. 축하와 함께 주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시종직〉 나춘성(스테파노)-팔마, 정양현(베드로)-김재, 경규봉(가브리엘)-고산
 〈독서직〉 김요안(요한)-삼례, 이덕근(요한)-주현동

신교의 가교(架橋), 고산천주교 축구단 창단

얼핏, 할렐루야 축구단과 쌍벽을 이룬 축구단으로 오해할까 조심스럽다.

고산 천주교회에서는 10년 가까이 조기 축구를 해 오던 중, 그 지역 신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 40여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이 창단되어 기념대회를 열었다. 후원회와 응원단까지 조직한 이 단체에는 월 1회 지역 축구 정기전(4개팀)을 연다고 한다. 창단과 더불어 20여명의 예비자가 붙었으며, 친선 뿐 아니라 신앙심 앙양에도 큰 몫을 한단다. 신교측의 부러운 눈총을 받으며, 발기된 축구단은 인접 본당과도 유대 강화와 일치를 위하여 경기를 원하고 있다.

새벽 5시부터 연습하는 젊음과 건강속에 곧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복음 전파자의 사명 다하길 바란다.

제2기 베델성서 연구원 하기 피정 가져...

2년간의 신·구약 성서 공부의 긴 여정을 힘차게 견고 있는 제2기 베델성서 연구반은 학생회 주체로 6~7일 양일간 하기 피정을 가졌다.

조용하고 경치좋은 수류본당에서 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된 이번 피정은, 김환철 신부님 주례의 말씀의 전례로 시작하여 이순성, 김태운, 김준호 신부님의 지도로 지난날의 삶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려보는 의의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들은 특별헌금을 마련해 원명성당 신축기금으로 봉헌하면서 하느님 성전이 완공되길 빌기도 했다.

이제껏 공부한 것을 실생활에 비추어 묵상해 보는 좋은 기회로 영적인 큰 성과를 얻었다고 베델성서 학사님들께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더 복음적 생활을 노력하길 격려드리면서, 큰 손님을 차든 수류본당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인성회 기금— 사순절 모금 현황

주교회의 인성회에 보고를 위하여, 아래의 14개본당을 제외한 본당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 | | |
|------------------|-------------------|------------------|
| 1. 수 류(47,000원) | 2. 정 읍(103,970원) | 3. 둔율동(100,000원) |
| 4. 월명동(183,000원) | 5. 삼 례(54,490원) | 6. 여 산(77,080원) |
| 7. 창인동(318,476원) | 8. 황 등(23,900원) | 9. 중 양(545,081원) |
| 10. 진북동(36,450원) | 11. 남 원(153,840원) | 12. 무 주(43,800원) |
| 13. 상 관(7,145원) | 14. 진 안(50,150원) | 전주교구 인성회 사무국 |

<양 서 소 개>

「마르코 복음서의 재발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성서연구부 편저, 분도-2,700원

변천하는 현대 교리교육 방식에 따라 인간 예수께로 초점을 맞춘 이 책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질서하게 보이던 마르코 복음을 일괄 통일성있는 독서방법하에 새로운 구조와 사상을 발견케 하는 주해서이다.

요섭이(410) 김병오



문교부(文敎部)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사회 1074-690〉

책(冊)을 신속·정확히 읽는 속독법(速讀法) 지도

※ 회원 모집

초·중·고·대학생, 일반

※ 지회 운영자 모집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사(성모병원 3층)

☎ 6-4567

조 윤 희(베드로)

거 북 식 당

남원읍 금리 21번지
(제일극장 앞)

전화 4188번

공 레 지 나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섭)

□호성그룹이 만드는 세계적인 y샤쓰

원미.맨하탄 y샤쓰 특약점

베 드로 네 집

아카데미백화점 A-5호(6-4412)

안 철 만(베드로)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시사항

1. 사제 인사발령 : 박성관 신부(군중대기)를 6월 2일자로 군산 월명동 보좌신부로 발령
 2. 제 4 지구 회합 : 6월 1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3. 문학강좌 : 6월 20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강당
강사-이법선 교수, 제목-작가의 정신세계
 4. 제 4 지구 중·고등학생 단합 체육대회 : 6월 14일 오전 8시 30분, 장소-해성 중·고교 운동장
 5. 섬가대 연합회 대의원 모임 : 일시-6월 21일 오후 2시, 장소-교구청
대상-섬가대 대표(미결성시 전례부장)
- 한기호 신부 영명축하연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환
 ③3874번 보좌 신부 유준익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김형수

1. 코리아 월례회 : 오후 2시 강당
 2. 방ziger 삼회 피정 : 6월 21일 오전 9시~4시 30분까지
장소-중앙성당, 전주지구 회원 전원 회비 및 도시락 지참하고 참가 바랍니다
 3. 견진 : 6월 7일 174명 견진 축하드립니다
 4. 영세준비자 교육일정표
 - ① 종합교리-6월 16~19일 · 23 · 24일 6일간
 오전반 10시 30분, 오후반 8시
 - ② 시험 및 참고-6월 25~26일 2일간
 - ③ 성세준비-6월 27일 교리 최종 점검
 - ④ 영세일자-6월 28일 오후 7시 30분 미사
 5. 박인호 신부님 영명축하(성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아침 6시미사 없고 오전 10시 30분 미사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91,001원
견진 감사예물 : 167,730원

3.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에서
 4. 푸른군단 마리아책 81년도 봄호를 한가정에 한권씩 구입 바람
 5. 신용협동조합에 가입 : 아직 가입 못한 신자분들은 속히 가입하여 도움 주고 도움 받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323,4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장님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코리아 모임 : 14일(일) 오후 2시
 3.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5. 교무금 5월분까지 미납하신 분 속히 납부하세요
 6. 전례담당 : 독서-① 박병환 ② 김수걸
 기도-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 256,255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 18차 성령세미나 : 내일부터-20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수녀님들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시
 3.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디도서 · 필레몬서 · 히브리서 · 야고보서 전체
 4. 본당 코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의 빠진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6.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7.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8시부터
 8. 아파트 공소 건립기금 : 유세시리아씨(2만5천원)
제대 꽃값 기증-김베로니카씨(1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12,895원
사제양성 후원금 : 288,754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갈노

1. 성모회 월례회 : 6월 21일 공식미사 후
 2. 축영명 : 이바오로 주임신부님의 영명축하 6월 29일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3. 성서연구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많은 참석바람
 4. 섬가연습 : 매주 공식미사 후, 모두 한곡씩 배웁시다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귀배
 독서-① 김남곤 ② 김수걸, 기도-이종욱
- 지난주 봉헌금 : 311,29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 · 반장 · 단체장 임원들 꽃 참석하세요
 2. 오늘 중·고생 4지구 체육대회 (해성학교 교정)
9시 학생미사 없습니다. 많은 응원단 성원있기를
 3. 주일학교 교리 : 주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4. 가정방문 계획 : 금주-금암동, 차주-덕진동
구역장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5. 화단 제작작업 : 깨끗한 분단을 만들지 않으시렵니까
 6.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합니다
성서연구 모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7.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 애령회에 관심과 협조 바람
 8.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미사 후, 보좌신부님 지도
 10. 성모의 밤 행사 사진 찾아가세요, 사무실로
- 지난주 봉헌금 : 423,69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영도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꼬미시움 : 다음주(21일) 오후 2시
 5. 축! 견진 : 오늘(14일) 공식미사 중에
 6. 사제양성후원 저금통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람
 7. 다음주(21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영영, 독서-① 최병래 ② 박중주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 장금태 ② 백종흠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 변해식 ② 이진홍
 8. 울드레아 야유회 : 6월 28일, 장소-운암저수지
 회비-3,000원
 9. 주일학교 어머니회 : 6월 20일(토) 오전 10시
 10.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장소-해성학교
 학생미사 후 집합
- 지난주 봉헌금 : 467,555원
 사제후원 헌금 : 131세대 445,000원

(복자)

전화 ⑤25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노선경 · 최계홍)
2. 축영명 : 6월 29일 김희남 베드로 보좌신부님, 나누어 드린 봉투를 다음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코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레지오 간부들의 빠진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 운동장에서
 있으니, 교우들의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3. 영세식 : 6월 21일 오후 2시
 ① 영세하실 분들을 위해 6월 11일부터 매일밤 8시
 에 특별교리 있습니다 ② 영세예정자를 위해서 면적이
 18일 · 19일 있습니다 ③ 유아세례도 금월은 마지막
 주일에 없고, 21일 주일에 영세자들과 같이 하겠
 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2,565원 교무금 : 70,500원